

WITH  
ARAB  
MUSLIMS

# 함께 기리는

MAR 2017  
VOL.6

발행인: 김현성

편집: 정기은 디자인: 서응교

<http://www.chammission.org>

E-mail: [chammission@gmail.com](mailto:chammission@gmail.com)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24길 35,  
202동 1403호

## 선교는 교회의 열매입니다.

C.H.A.M 이사 유요한 목사(서안교회)

교회가 기독교의 꽃이라면 선교는 교회의 열매입니다. 민들레가 홀씨로 있을 때 개체가 응집되어 있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씨앗이 떨어진 곳에서 또 다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전도로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함이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를 내지만 그 생명력과 열매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선교의 바람을 따라 나아가는 복음전파로 피어난다고 봅니다.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교회라는 뿌리를 두고 서로 협력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되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사들 중 다수는 선교지에 맞는 분명한 선교전략이 없이 사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의 방향을 정하기 전에 선교사가 속한 선교역사, 문화, 성공과 실패의 사례 등을 연구한 후 신중하게 평생의 사역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선교 사역이 현지인들의 영혼구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인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부르심인지를 알기 위해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현지인 및 선배 선교사들로부터 충분한 조언을 구하지 않고 성급하게 사역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기초적인 현지 언어공부 없이 사역에 급하게 뛰어드는 선교사들도 있음을 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충분한 현지어 준비, 문화, 현지인들의 가치관 등은 연구하지 않고 조급하게 많은 일을 벌여 분주한 경향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마땅한 전략과 사역의 방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함에도, 쉽게 열매를 얻기 위한 물량주의 선교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선교사는 현지 영혼들에게 참된 구원의 확신도 주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물질적 채움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C.H.A.M 선교회의 선교사는 다년간 현지 생활을 통하여 언어와 문화를 답습하고 국내에 돌아와 전문사역기관에서 전문선교사로서 자질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진정한 선교사로서 다시 가족을 이끌고 현지에 나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슬람권을 위해 준비하신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이슬람권을 선교지로 삼아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복음의 불모지이기에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필요하셨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선교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이슬람의 구원관

C.H.A.M Mission 대표 김현성 선교사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시되는 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에서는 구원에 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으며 그 이슬람을 따르는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구원에 대하여 어떠한 이해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슬람의 구원관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네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번째로 선행이다.

무슬림들에게 가장 우선시 되고 기본이 되는 구원의 방법이다.

꾸란 2:25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기쁜소식을 전하라 그들을 위해 천국이 있고 ....”

꾸란 10:9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한 자 주님이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인도하시니 강이 흐르는 고요한 천국으로 보상하리라”

꾸란 13:29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이들은 축복과 아름다운 최후의 거처가 그들의 것이라.”

꾸란 31:8 “그러나 실로 믿음을 갖고 선을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천국이 있거늘”

이 외에도 꾸란의 여러 곳에서 선행하는 자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구절이 나온다. 그런데 문제는 선행의 기준이 무엇인지, 혹은 얼마만큼의 선행을 해야 천국을 보장받는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다.

두번째는 예정론이다.

이것은 숙명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알라에 의해서 이미 모든 것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알라에 의해 예정되어 있으며 그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정론과 선행의 방법에서 충돌되는 한가지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이슬람에서는 인간의 행위가 저울에 달아 그 경중을 따지고, 그 선과 악의 무게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논리는 이슬람에서 예정론(숙명론)과 충돌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한 무슬림이 일생에 악행을 많이 저질렀다고 하면 그에게는 지옥이 허락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알라가 이미 이 사람의 운명을 천국으로 정해놓았다고 하면 심판의 날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세번째는 성지순례이다.

천국으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이다. 일생에 한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순례하는 것이다. 혹 자신이 병들거나 재정적 여유가 없어서 메카를 방문할 여력이 없을 때는 순례자에게 약간의 여비를 보탬으로서 순례를 대신할 수도 있다.

네번째는 성전(지하드)이다.

성전은 무슬림으로서 누구에게나 의무 사항이다. 이것은 온 세계가 이슬람화 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의무이다. 성전은 신이 제정한 것이며 이외의 목적은 이슬람의 전진과 이슬람으로부터 악을 몰아내기 위함이라고 한다. 어떤 무슬림 국가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위협의 정도에 따라 전 세계의 모든 무슬림들을 소집하기도 한다.

지하드는 소 지하드와 대 지하드로 나뉘는데, 소 지하드는 내적인 자기 수행을 의미하며, 대 지하드는 사회적, 정치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지하드이다. 소위 말하는 테러는 이러한 대 지하드를 따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꾸란의 여러 곳에서도 지하드에 관한 구절을 찾아 볼 수 있다.

꾸란 9:5 “금지된 달이 지나면 너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마다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그들을 포위할 것이며 그들에 대비하여 복병하라.”

꾸란 3:169~171 “알라의 길에서 순교한 자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알라의 양식을 먹으며 알라 곁에 살아 있느니라. 그들은 알라가 주신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 뒤에 올 그들 순교자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곳의 그들에게 두려움도 없으며 슬픔도 없느니라. 그들은 기뻐하리니 알라의 은총과 박애가 그것이로다. 알라는 믿는 자들의 보상을 삭감치 않으시리라”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서 보여주는 몇가지 천국에 대한 구절은 있지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없다. 즉, 이슬람에서는 천국에 대한 어떠한 보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슬람 학자 혹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슬람에서의 구원에 관하여 위에서 언급한 네가지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슬람에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줄 구원자가 필요치 않다. 무슬림 각자가 자신의 행위에 관해 알라에게 직접 회개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아랍어 가운데 ‘알라가 너를 용서할거야’ 라는 말을 많은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에서 말하는 지옥은 기독교에서와 같이 불신과 악행에 대한 영원한 형벌만이 아니라 영혼의 정화라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도 한다. 그렇기에 신자일지라도 죄악이 있을 때 지옥의 불로 정화된 후에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궁극적으로 그가 무슬림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았든 결국에는 다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다.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고, 악행을 많이 한 사람은 지옥에서 약간의 벌을 받은 후에 선지자 무함마드가 중재자가 되어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이 믿는 경전인 꾸란에서는 어느 것 하나 천국에 대한 보장된 방법이 없는데 단지,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천국을 보장받았다고 스스로 믿는 속임수에 빠져 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요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무슬림 영혼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믿는다.



## 마나라 센터를 찾은 시리아 난민이야기

시리아의 오랜 전쟁으로 인해 고국을 떠나 고향을 떠나 이곳 요르단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리아 사람들이 수십 만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에게 허락된 몇몇 가정을 돌아보며 섬기고 있습니다. 가정들을 방문하여 난민으로서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시리아인 몇 가정을 저희 센터로 초대했습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을 합해서 약 35명이 모였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서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은 센터의 액티비티 룸에서 미술 도구, 풍선, 블럭 등을 가지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며 놀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성들은 메인 세미나실에서, 남성들은 센터의 사무실에서 커피와 차를 나누며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모임의 첫 시작을 열어 갔습니다. 손님으로 센터를 방문했지만 이미 관계가 있기에 본인들이 알아서 커피와 차를 준비하고 서로서로 대접하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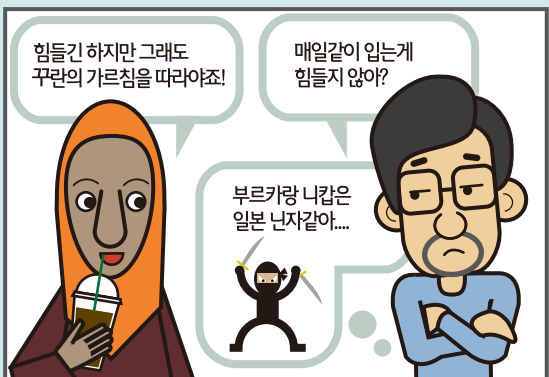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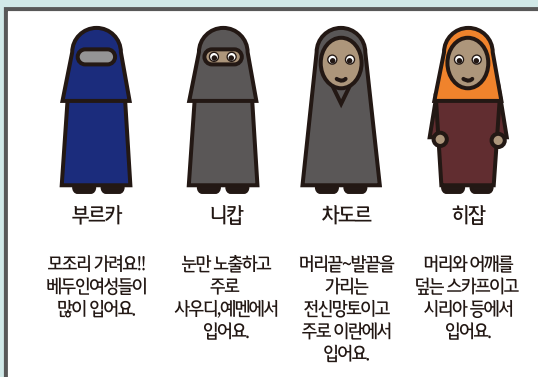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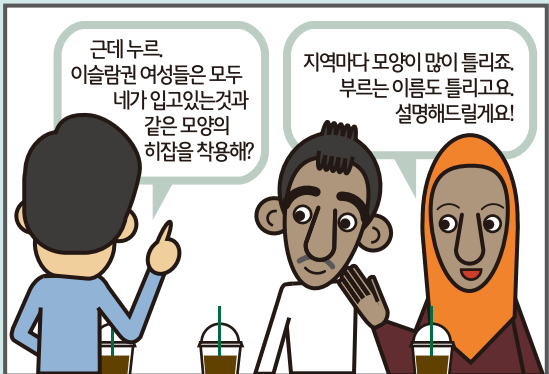
아부 마즈드(현지인 사역자)가 사람들과 함께 용서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용서라는 주제는 서무슬림들에게 있어 쉬운 주제가 아니기에 조심스러웠지만 기도하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짧은 영상과 함께 용서의 의미와 용서가 가져다 주는 유익에 대해서 나눌 때 모두들 진지하게 듣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저희 센터를 방문했을 때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영어, 아랍어, 한국어 찬양을 통해 그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 자신들을 위해 이러한 시간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것이 마냥 고맙고 신이 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중간에 저희들 옆에 와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마치 연예인이 된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미리 주문한 음식으로 모두가 배부르고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아랍 커피 한잔씩 마시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자신들만의 2부 순서로 그 동안 쌓여있던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어내는 듯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흥겨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남성들은 남성들끼리 그리고 여성들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즐기고 신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이러한 시간과 공간이 얼마나 필요했었는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임이 마쳐질 때 쯤에는 난민으로서 센터를 방문해서 자신들의 필요만 채우고 돌아가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함께 뒷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면서 자신들이 섬김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에 저희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난민이기에 받아야만 하고, 저희는 그들의 필요를 요구하는대로 채워줘야하는 그런 필요충족의 관계가 아닌 서로를 이해함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돕고 섬길 수 있는 관계나 그런 모임으로 발전하고 성숙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난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힘든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크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마나라 센터가 시리아 난민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이 춥고 외롭지 않도록 늘 환하게 비추는 마나라(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 마나라센터 이야기

### 01. 태권도 교실을 위한 공간 확장

기존의 태권도실이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새로운 공간을 임대하여 확장하였습니다. 현재 12명의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데, 최소 20명 정도가 등록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며, 태권도실 임대료 및 장비 구입을 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02. 어린이 문화 활동 교실

매주 토요일 20~25명의 아이들을 위한 액티비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지역 고아원과 연계가 되어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문화 활동 교실을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03. N.L.P(언어 치료 세미나) 세미나 진행

타 N.G.O 기관의 초청으로 10주 과정의 N.L.P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외부에서 진행된 첫번째 세미나였습니다. 더 많은 교회, 기관, 단체에서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미나를 진행하는 현지인 사역자가 영향력 있는 사역자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04. 시리아 난민 가정 초청 모임

시리아 난민 가정을 센터로 초청하여 함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이들을 초청하여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 05. 크리스마스 선물박스 나눔

미국의 한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약 350여 명의 지역 무슬림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희 센터에 나오는 아이들, 시리아 난민 아이들, 그외 저희와 관계 있는 사람들의 동네에 가서 그 지역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선물을 받아 든 아이들 모두가 자기가 받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에 저희 또한 감사했습니다. 선물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이 아이들에게 흘러 가기를 기도합니다.



## 선교회소식 & 기도제목



### 1) 이사회 요르단 방문

지난 2월 20일~24일까지 이사장님 내외분과 이사님 두분이 요르단의 CHAM 미션 본부와 마나라 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선교회의 본부 사역과 마나라 센터 사역에 관한 보고 및 사역 계획, 방향에 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사님들의 방문이 선교사 뿐 아니라 함께 하는 현지 사역자 모두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본 선교회 이사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2) 크리스마스 선물 나눔 증정

미국의 한 기관을 통해 선물 박스를 기증 받아 마나라 센터를 통해 약 250여명의 어린이들(요르단, 시리아)에게 선물을 나누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 3) '마나라 센터' 단기 사역자 모집

'마나라 센터' 사역에 함께 할 단기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센터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 미술 수업, 음악 수업 등을 섬겨줄 사역자와 영어, 한국어 등 교육을 담당해 줄 사역자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센터 사역을 위해 기부해 주실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교회로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4) 장, 단기 선교 훈련생 모집

중동 아랍 무슬림 선교를 위해 헌신된 분들을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의 훈련은 중동 현지에서 직접 실시되며 사역과 삶에 필요한 아랍어, 아랍 문화, 무슬림 전도법 등 이론과 실재가 통합된 총체적 훈련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의 사역자를 통해 직접 지도를 받게 됩니다. 훈련 기간은 단기 3, 6, 12 개월, 장기 2년 이상을 기준으로 실시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교회로 연락 주십시오.

### 5) 선교회 회원 및 후원자 모집

본 선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 물질 후원 혹은 그 밖의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해 주실 동역자를 기다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선교회의 소식지와 중동 아랍 무슬림 사역에 관한 정보를 요청시 제공해 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6) 한국 스텝 모집

본 선교회와 함께 스텝으로서 다양한 부문에서 동역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선교와 아랍 무슬림에 관심이 있거나 자신의 재능을 선교회 사역을 위해 기부하길 원하시는 분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저희 선교회의 모든 스텝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연락 기다립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이사후원 (16.10-17.01)

김석한 목사 (평강교회)  
김현덕 집사 (영광교회)  
박기철 목사 (분당제일교회)  
박동석 목사 (감동교회)  
박순규 목사(밀알교회)  
박종찬 집사 (감동교회)  
박진선 집사 (감동교회)  
박형진 교수 (햇불 트리니티)  
신일수 집사 (감동교회)  
유요한 목사 (서안교회)  
윤동희 목사 (소망의빛교회)

### 일반후원 (16.10-17.01)

김현진 노윤태 명유정  
박희선 안진혁 양광교회  
이숙영 이슬기 이영배  
이지은 이승기 임지아  
장시훈 전병천  
이상 가나다순

## C.H.A.M 이사회

이사장 : 박동석 목사(감동교회)  
 고 문 : 강정식 목사(새성남교회), 박기철 목사(분당제일교회)  
 총 무 : 박형진 목사(햇불트리니티신대원)  
 서 기 : 손병규 목사(헤브리처치)  
 감 사 : 최환열 집사(온누리교회)  
 이 사 : 김만석 장로(감동교회), 김석한 목사(평강교회),  
 김현덕 집사(영광교회), 남형열 목사(주님교회),  
 류종상 목사(작전중앙교회), 문단열 전도사(어메이징그레이스교회)  
 박순규 목사(밀알교회), 박종찬 집사(감동교회),  
 박진선 집사(감동교회), 박진우 집사(주영광교회),  
 박희철 목사(함께하는가정운동본부),  
 신일수 집사(감동교회), 신현 목사(강은교회),  
 유요한 목사(서안교회), 윤동희 목사(소망의빛교회),  
 이규한 목사(목양교회), 이은상 목사(은혜동산교회),  
 이호석 집사(감동교회), 장홍모 장로(감동교회),  
 정진오 목사(금발교회), 최복용 목사(호산나교회),  
 추종식 목사(법인재단하늘채), 하두형 목사(영국원불탄한인교회),  
 한규동 목사(남문교회) 이상 가나다 순

## C.H.A.M 스텝

대표 : 김현성  
 행정/재정 : 전영주  
 문서/편집 : 정기은  
 회원 관리 : 정연심  
 디자인 : 서응교  
 미디어 : 손미정, 최봉은

아랍 무슬림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come & Help Arab Muslims

후원방법1: 1 + 1 + 1 후원

월 1만원 재정후원 + 1일 1분 기도후원

후원방법2: 자동후원 (월 자동이체)

금액에 상관없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724701-01-412754  
 예금주: 김현성 (C&H A.M MISSION)

- 처음 후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꼭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거래은행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보다 쉽게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선교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 담당자: 강해정 총무 (010-8730-8624)

사랑을 키우는 공간

마나라센터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선교사 훈련 모집

단기 선교사

- 기간 : 3, 6, 12개월
- 장소 : 요르단
- 내용 : 기초 아랍어, 아랍 문화 체험, 마나라 센터 사역 동참 등
- 절차 : 서류 전형 / 사전 인터뷰 / 훈련 참여

장기 선교사

- 기간 : 2년 이상
- 장소 : 요르단
- 내용 : 본 선교회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 됨.
- 절차 : 서류 전형 / 사전 인터뷰 / 현장 리서치(약 2주) / 최종 인터뷰 / 훈련 참여

\* 훈련 참여가 결정 되면 이사회를 거쳐 본 선교회 파송 선교사로 허입 됩니다.



**C.H.A.M**  
 Come & Help Arab Muslims

C.H.A.M은 '아랍 무슬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로'의  
 구호 아래 아랍 무슬림 복음화를 위해 헌신된 단체입니다.

이메일 | chammission@gmail.com

홈페이지 | www.chammission.org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127-82-92058

선교회 연락처 | 010-8730-8624 (강해정 총무)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24길 35, 202동 1403호

“아랍 무슬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로!!”